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대한 소고  
: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강상우 (고구려대학교)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神學的土臺)에 대해서 개괄적(概括的)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본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법칙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고찰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전도]나 사회적 책임이냐는 많은 시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금도 일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교단과 지교회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이러한 논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또한 심심찮게 보고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논쟁을 어느 정도 불식(拂拭)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조직신학의 내용 구성[教材一般目次]에 따라 드러내고자 하였다.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은 과거와는 달리 성경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되어 지고, 또 되어져야만 하는]을 지적[自覺]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곧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책임의 토대로 오늘날 작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주제어: 사회적 책임. 전도[선교]. 성경. 기독교. 신학적 토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에 대한 소고  
: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I 머리말

1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부터 시작된

최근에 양화진 탐방을 하였다. 과거 가본 적이 있었지만 아내가 이번 기회에 자신도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한 것이다. 그곳에 가기 전에 양화진과 관련된 책을 미리 읽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아른 척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립대 도서관에서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하희정 박사의 『그들은 휴머니스트였다: 조선의 역사가 된 이방인, 시민사회를 열다』(2017)를 찾아 읽었다. 그 책 내용 중에 아직도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는 이 글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한국에서 3살 밖에 안 되는 여동생인 이디스 홀을 잃은 셔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에 대한 아주 짙은 내용이였다. 당시 오빠인 홀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진 속에 한복을 입은 이들 남매의 모습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잘 울지 않는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반복의 연속이다. 내 친동생에 대한 남모름 미안함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의 어머니는 그것이 나이 먹어가고 있다는 증거라신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의 내용과 일부 관계있는 사건으로 당시 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올리버 R.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과 마포삼열(馬布三悅)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잘 알려진 새뮤얼 오스틴 모펫(Samuel Austin Moffet)과 오하이오의 부호였던 루이스 H. 세브란스(Louis H. Severance)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선교(구원사업)이나 사회적 책임(자선사업, 사랑의 실천)이나를 두고 대립이 있었던 것이다. 세브란스 병원 건립 과정에서 당시 있었던 일을 하희정 박사의 책에 나온 내용이 길지만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에비슨은 현대식 종합병원 건립을 계획했다. 구리개(현 을지로)의 제중원은 재래식 조선가옥으로 되어 있어 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웠다. 1899년 안식년 휴가는 좋은 기회였다. 캐나다로 돌아가 가는 곳마다 조선이 절박함을 호소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지만 많은 이들이 협력했다. 건축가 고든(N. S. Gordon)이 설계도를 제작해 첫 기부자가 되었다. 한 여성 노동자는 5달러를 기부했다. 기관차 제작 회사 부사장도 힘을 보탤다. 사업가답게 설계도를 살펴보고는 건축비로 500달러를 내놓았다. 미국 오하이오의 부호 세브란스(L. H. Severance)가 통 큰 기부를 했다. 여러 교파 교회들이 협력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시급하다는 말에 10,000달러를 쾌척했다. 꼭 필요한 곳에 병원을 세우려고 물색 중이었다며 계획을 자세히 물었다. 고종은 병원

부자를 희사하겠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세상은 선한 의지만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었다. 고종이 부지 마련을 돕도록 보낸 이용익은 왕실 재정을 맡아보던 인물이었는데,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다. 교묘한 방법으로 사사건건 방해를 놓았다. 보다 못한 세브란스가 '신하들 말만 믿는 왕에게 더 이상 기대 말라'며 부지 구입비로 5,000달러를 따로 보냈다. 덕분에 답사한 지역 중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히던 남대문에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복음전도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상당수 장로교 선교사들도 강하게 반대했다. 조선 신자들이 기독교를 영혼 구원사업이 아닌 자선사업 단체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마펫(Samuel Austin Moffet)을 비롯한 평양선교사들은 교육과 의료 활동을 사랑의 실천이 아닌 복음전도의 수단으로만 여겼다. 이들은 뉴욕의 미 장로교 선교위원회에 세브란스기금을 절반만 병원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하는 복음전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 분노한 세브란스가 병원건립에 필요한 5,000달러만 기부하겠다고 선언하자, 미선교위원회 간사가 조선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조선의 상황을 직접 둘러본 후에야 에비슨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고백했다. "올바른 예수의 가르침은 오로지 실천을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구한말 40여 년의 풍경』, 448쪽). 1904년 가을, 생소한 이름의 세브란스병원이 남대문에 세워졌다. 제중원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러일전쟁으로 자재 값이 폭등하여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세브란스가 병원건립의 완성을 도왔다. 그는 공사비의 일체와 건축을 맡은 고든의 월급까지 지원했다(하희정, 2017: 146-148.; 강조는 본 연구자. 개인적으로 이 글과는 거리가 먼 뒷부분의 내용이 있어서 참으로 기뻐다. 그래서 길게 뒷부분도 인용해 보았다).

## 2 연구목적과 연구전제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로도 위의 비슷한 논쟁은 지속적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선교냐, 봉사냐. 그것이 문제로다'였던 것이다.<sup>1)</sup> 교회[기독교]의 공신력의 회복이라는

---

1) 스캇 맥나이트(Scot McKinght) 교수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Kingdom Conspiracy: Returning to the Radical Mission of the Local Church)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은 통전적 구속이다. 기독교적 행동주의는 스펙트럼의 양쪽 극단을 향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이들은 개인 전도와 영혼 구원에 전력한다. 이는 그들이 죄와 개인적 구원의 필요에 대해 말하는 복음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은 개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오직) 복음전도가 될 뿐이다. 다른 이들은 사회정의 및 몸이나 정신 혹은 공동체 전체의 구속에 초점을 맞춘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은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스펙트럼에는 두 가지 극단이 존재한다. 곧 복음전도와 정의, 혹은 영적 차원의 사명과 사회적 차원의 사명이라는 두 가지 극단이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두 가지 견해와 대조되는) 세 번째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에 주목한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인정하지만 그 사명의 사회적 차원을 위한 자리가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 둘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 이뤄지는 다차원적 구속에 초점을 맞춘다. ...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지금 여기서 오직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구속일 뿐이다."(McKinght, 2016: 275-283, 강조는 본 연구자).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논쟁이 교회와 신앙의 일선에서 시시콜콜하게 실천[복지·봉사]의 발목을 꼭 붙잡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sup>2)</sup><sup>3)</sup><sup>4)</sup> 본 연구는 오늘날 성경의 해석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紹介]하고자 한다. 과거의 성경해석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편협하고 소극적인 해석이었다면 오늘날 일부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도[일부의 연구자들은 복음주의자의 범주 밖에 있는 이들로 간주되는 이들도 있을 것이며, 이는 연구자들의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연구전제를 달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포괄적인 해석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본 연구자가 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인용과 재인용이 많고 인용 또한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성경 연구자들의 해석[理解]을 통해 성경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매우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이다. 본 연구는 학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 모자이크식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지적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살피는 것은 요즘과 같이 기독교의 사회적 공신력이 떨어진 사회적 분위기에서 공신력의 재고와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부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독교의 공

2) 그래서 김근수 박사의 다음과 같은 지적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자선이 불의한 사회를 지속하는 눈가림으로 작용하거나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려는 열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개혁에 앞장설수록 더 자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에 수고하는 사람들이 사회정의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사회정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선단체를 무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선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지나치게 밀착하는 모습도 적지 않다. 자선을 내세우는 종교가 자선기관을 소유하는 부자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자선단체를 많이 소유한 종교는 결국 부자를 감싸고도는 흐름에 빠지기 쉽다. 어려운 길이지만, 자선과 정의를 함께 가는 길이다."(김근수, 2014: 152).

3) 다음과 같은 지적도 참고하라.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연구로서 구약에 나타난 공의와 자비의 개념들,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들을 찾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이 성서를 사회주의나 어떤 신학적 관점의 이데올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끌어다 맞추기'식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시도에 대하여 사회학원이니 해방신학이니 하는 구태의연한 신학적 '이름표 붙이기'(labeling)로 간단히 치부해버리는 위험도 피해야 할 것이다."(박승탁, 2010: 42).

4) 참고로 마이클 그린피스(Michael Griffiths)는 개인주의로 흐르는 경향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 흥미롭게도 영어의 인칭 대명사인 You와 관련된 "영문법의 혼동"을 얘기한다. "... 서구의 개인주의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문화적인 설명은, 표준 영어의 2인칭 단수 '너'(you)와 2인칭 복수 '너희'(you)가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회중들에게 보내진 신약의 서신들이 마치 개개인에게 보내진 것처럼 읽혀지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각자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옳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성경을 개인주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것의 원래 의도가 우리를 개인으로보다는 오히려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보고 교훈했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면 불행한 것이다. ... 그러므로 영어권의 독자들이 신약의 교회들 중 하나에게 보내진 어떤 서신으로부터 'you'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을 개념상 남부인들의 유쾌한 표현 습관인 '당신들 모두'(all you)로 번역하거나 옛 에이레 지방의 흥겨운 사투리인 '너희들'(yous 또는 youse'uns)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Griffiths, 1992: 26-27, 29);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5:14;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 구절은 제임스홍정역에서 인용해야 한다. 이후 수백 년이 흐르며 영어에서는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단수 'thou'와 'thee'를 상실했고 'you'는 단수와 복수를 가리킬 때 모두 쓰이게 되었다. 그 결과 개정표준판(RSV)은 이 구절을 "You are the light for all world"라고 옮기는데 아무런 맥락도 모르는 독자들은 여기서 'you'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기 힘들다. 그러나 본래 여기서 가리키는 You가 개인이 아닌 집단과 공동체를 뜻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Pelikan, 2017: 358-359).

공선(公共善, [共同善])<sup>5)</sup>과 공공신학의 토대의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研究實益].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의 대표적이면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실천의 현장인 기독교사회 복지의 실천의 근거와 동기부여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유익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前提)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고인이 된 아서 F. 홈즈(Arthur F. Holmes) 교수의 책의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All truth is God's truth, [이는 과거 St. Augustine이 한 말이기도 하다])임을 기저(基底)로 하고자 한다. 이는 비록 기독교 공동체의 밖[자신이 속한 공동체 밖]에서 발견된 진리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는 것은 진리(truth)로서의 역할[機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Holmes, 1991).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인용할 때에 그들 연구자들의 일부가 [이는 단순히 개인적이며 상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겠지만] 설령 그들이 복음주의 밖에 있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제한적(制限的)으로 그들의 연구들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매우 귀중한 근거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용되어지고 있는 이들의 신학이 진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부감을 가지고 바라보기 보다는 다양한 신학적 기반은 한 연구자들에 의한 이러한 다양한 해석도 존재할 수 있구나 하는 수준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청교도 작가인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가 남긴 지혜로운 명언이든, 존 스토틀[John R. W. Stott] 목사의 지적처럼 루퍼트 멜데니우스[Rupert Meldenius]가 했던 말이든 상관없이 “본질적(本質的)인 것에서는 일치(一致)를, 비본질적(非本質的)인 것에서는 자유(自由)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in necessariis unitas, in non-necessariis libertas, in utrisque caritas[“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이 삶을 살아가는 데 지혜로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6)</sup>

### 3 기술 범위(記述範圍)와 한계

성경 전체에 광범위하게 분포[퍼져있는]되어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나름 생각한 끝에 본 연구자는 본고에서 조직신학의 기술방법을 채용하고자 한다. 즉 조직신학의 기술목차[組織神學記述範圍]를 참고하여 그 순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해 가려고 한다(특히 과거 조직신학의 대표 교재 중

5) 송용원 (2017). 『칼뱅과 공동선』. 서울: IVP.

6) 중국어예배에 참여하는 豐文君(Feng Wen Jun) 자매에게 이 좋은 문구를 중국어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보니 “本質的東西是 一致的, 非本質的東西是 自由的, 除此之外 只有愛”라고 말해줘서 여기에 옮긴다.

의 하나였던 Louis Berkhof의 『Systematic Theology』의 목차를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루이스 벌코프는 서론→신론→인간론→기독교론→구원론→교회론→종말론의 순서로 기술하고 있다. 항목에 없는 성령론[聖靈論]을 분류하여 기독교론 다음에 기술하라고자 한다)7). 이는 개인적으로 조직신학의 기술 범위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칠지 모르지만 성경의 폭넓은 내용을 어떠한 범주로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연구의 단점으로는 내용에 있어서 중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예로 들어 신론의 중심은 삼위일체인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론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호 중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기독교론은 구원론에 있어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복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구원, 칭의, 정의, 죄 등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항들을 어느 범주에 넣을까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본 연구자의 임의적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제시[引用]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해석은 절대적이기 보다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으나 하는 정도의 소개로 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견해들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전적으로 본고를 읽는 개인의 신앙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성구들을 나열하거나 성경의 각 분야, 즉 복음서면 복음서, 율법서면 율법서 등을 중심으로 복지관련 내용을 잘 정리한 다양한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조직신학의 목차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성구의 나열에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연구자들의 성경 구절에 대한 '연구자 자신들의 해석'[이해]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 II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

믿음은 사회적으로는 자선을, 공적으로는 정의를 낳는다(Wallis, 2008: 35).<sup>8)</sup>

7) 조직신학(組織神學, systematic theology) 또는 교의학(教義學, Dogmatics)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며 다음과 같은 7가지 주제로 일반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서론(계서론), 신론, 인간론(인죄론), 기독교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그것이다.

8) 정의에 대한 강영안 교수의 지적이다. "성경에는 두 가지 정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제도나 경제 질서를 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자들이 희생되는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일차적으로 철저히 '희생자 중심'(victim-centered)입니다. 또 다른 정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공의로서의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부자라고 해서 봐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법을 집행할 때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는 것입니다."(강영안, 2009: 320-321).

기독교인이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성서적, 신학적 명제의 하나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비록 인간에 의해 온갖 불의와 부정, 그리고 범죄와 비행이 만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의 뜻에 맞게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기에 그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회복되기 원하신다.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신다.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문제로 인해 어둡게 되었고, 맛을 잃었으며 썩어 가고 있는 사회 현실 가운데서, 그 사회를 새롭게 할 책임이 교회에, 기독교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동안 한국 기독교인(개신교인)은 잘 믿기는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다(이원규, 2009: 120).

다음은 래리 W. 허타도(Larry W. Hurtado)가 자신의 저서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Destroyer of the Gods)에서의 지적이다.

초기 기독교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종교적 책무에서 사회적 실천과 올바른 행동을 중요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독특했다. 또 신자들에게 요구한 특별한 책무라든가, 의미 있는 사회사업으로 평가받아야 할 일에 열성을 다하는 태도에서도 남달랐다(Hurtado, 2017: 185).

이처럼 초기 기독교부터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heritage)'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조직신학(組織神學)의 일반적 순서(組織神學 著書의 記述目次)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론(序論, 또는 啓示論, 聖經論)

고아, 과부, 갇힌 자, 나그네, 집 없는 사람, 가난한 자, 주린 자, 병든 자, 지체 부자유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성경구절은 400여 개나 된다.(Rusaw and Swanson, 2008: 24)

성경은 하나님이 긍휼하시다고(compassionate) 말하며(시86:16), 신자들에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compassionate)고(엡4:32) 명한다.(Doriani, 2009: 257).

1970년대 윌리스[Sojourner의 Jim Wallis]와 그의 동료는 실제로 성경전체에서 빈곤과 불의에 대한 2천 개 구절들을 가위로 오려냈다. 그의 성경은 참으로 '구멍 뚫린 거룩한 성경'[hole-y Bible] 그 자체였다!(Barker, 2010: 25).

히브리 성경[구약성경]에는 '공정한'과 '올바른'이란 단어가 함께 짝을 이루어 자주 등장한다. 히브리어로 이 어휘들은 미쉬파트(mishpat)와 켄다카(tsdakah)이며, 항상 그 사회 안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정의의 규정과 관련되어 사용한다. 시편 82편 본문에는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가 된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정의와 공정한 심판, 정당한 배상에 접근 불가능한 사람들이 언급된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언제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양식에 관하여, "공의를 가져라"라고 말하기보다 "공의를 행하라"고 말한다.(Barker, 2010: 96).

조직신학의 서론(序論)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다룬다. 총론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계시인 성경에 그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권위(權威)를 가질 수 있다. 신약과 구약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전거본문(典據本文: dicta probantia, proof-texting: 하나님은 포괄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모든 교리적 윤리적 문제를 하나의 고립된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일명 '말씀 뽑기')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하여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신약과 구약, 이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보수주의 신학자와 진보주의 신학자들 간에 우선의 문제 즉 개인 구원과 사회구원의 우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신·구약성경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신·구약성경 간의 균형감을 떠나서 어느 특정한 하나만을 강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김성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그 결과 필자[김성건 교수]는 초기 기독교운동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었다고 결론 맺었다. 이로 부터 필자는 개인구원을 사회구원보다 강조하는 보수적 신학자들의 논거를 발견하였다. 한편 동시에 필자는 사회구원을 더 강조하는 진보적 신학자들은 그들의 논지를 뒷받침할 때면 언제나 구약의 예언서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성건, 2011: 81-81).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도 자신의 저서인 『그리스도인의 미덕』(After You Believes: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s)에서는 그 범위를 신약으로 좁혀서 거의 비슷한 유(類)의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서양 세계에 몸담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서신서 중심의 신자와 복음서

중심의 신자로 나뉘었다. 서신서 중심의 신자는 기독교를 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생각했다. 반면 복음서 중심의 신자는 예수를 따르다는 것을 주로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과 같은 선행의 견지에서 생각했다. 서신서 중심의 신자는 예수의 하나님나라 선포와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되라고 요구한 가르침에 과연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 어려워한다. 반면에 복음서 중심의 신자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예수가 어째서 그토록 일찍 죽어야 했는지를 설명하기 힘들어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면에서 바울 신학의 중심 주제들과 연관시키는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양자택일 식 접근은 서신서나 복음서를 공정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태도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Wright, 2010: 192).

김성건 교수의 지적처럼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해는 구약성경만을 보고 구약의 예언서를 강조하다보면 사회구원을 더 강조하게 되고, 반대로 신약성경만을 보고 이를 강조하다보면 개인구원만을 강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신·구약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균형감을 잃지 않는 영적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다.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J. H.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구약성경이 필요하다. 특히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개인에게 해당하는 이야기 정도로 축소해 버리지 않으려면 구약성경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경을 다음과 같이 축소하기 십상이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음을 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앞서 제시한 세 가지 핵심을 모두 사실이며, 나도 이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큰 이야기를 들려준다. 죄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구원도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고, 민족들 간의 분열을 치유하며, 인간과 창조 세계의 모든 필요와 상실에 구원을 주려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구원의 '큰 이야기'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렇게 생각했다. 이것은 창조세계 전체를, 교회 전체를, 개개인 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골로새서 1:15-23에서, 바울은 이 순서로 본문을 배열한다.”(Wright, 2016: 48-49).

신구약성경에 균형을 맞춘 연구자라면 성경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 신칼빈주의자(New Calvinist)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 교수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성경이 바로 정의(正義)에 대한 책임

라는 지적이다.

“나는 성경이 정의에 대한 책이란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정의의 형태가 얼마나 낯설고 충격적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적 정의 즉 그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삶을 결정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근대적 정의가 아니다. 오히려 과부, 고아, 이방인의 정의다. 사회는 모든 약자들, 가련한 자들,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공동체의 가족으로 회복될 때 정의로운 것이다. 성경적 정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 축사를 떠나고, 그 한 마디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는 목동이다”(Wolterstorff, in Kullerg ed., 2011; 232).

오랜 선교사 생활을 하였던,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도 자신의 저서인, 『공개된 비밀』(The Open Secret)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 관점을 지닌 이가 볼 때에 점 과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우리가 만일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에 헌신해야 한다. 정의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나눠줌을 뜻한다. 복음에 비취볼 때 우리 문제는, 우리 각자가 자기 몫을 받아야 할 몫을 자기 이웃이 받아야 할 몫보다 지나치게 많이 계산한다는 것이다. 만일 내가 고수하고자 하는 정의라는 것을 판단해줄 정의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무법 독재의 하수인이다.”(Newbigin, 1999: 24; Bailey, 2016: 467-468 재인용; 강조는 본 연구자).

특별계시인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정의’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다. 성경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영적인 귀를 가진 이들만이.

## 2 신론(神論)

구약성서의 ‘고아와 과부의 신’이란 신관은 고대 그리스도교에 깊은 영향을 준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유대교 사상을 흡수하면서 발전해나갔고, 특히 ‘고아와 과부의 신’이란 개념은 유대교 이상으로 그리스도교적 개념으로 자리 잡는다. 예수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를 돌보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가르쳤다(마25:35) 1-3세기 그리스도교가 소수종교일 때도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선사업에 헌신적이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라는 영성은 4세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이르러 병원, 호스텔, 구빈원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리스도교적 복지기관을 탄생시키는 정신적 바탕을 제공한다.(남성현, 2016: 26).

그렇다면 조직신학의 신론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고인이 되신 존 R. W. 스토틀(John R. W. Stott)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한 더욱 온전한 교리' 부분에서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하나님, 즉 '신성한' 것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것의 하나님임 ..., 언약 백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심 ..."에 대해서 지적하였다.(Stott, 2005: 41-43). 하나님은 단순히 성도들이 칭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公義)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기자가 말하는 대로 '하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를 보호하시는 재판장'(시68:5)이시며,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시고 떠도는 사람을 사랑하며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신10: 17-18)이시다"(정원범, 2005: 227)는 지적이다. 광미숙 박사의 경우 그녀의 스승인 독일의 신학자인 J.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이론을 통해 삼위일체(三位一體) 이론 속에는 사회적 참여가 있음에 대해 자신의 책,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2010)을 통해 다음을 논구한다. 그녀에 의하면 위르겐 몰트만은 사변중심적이며 이론중심적인 아우구스티누스 중심의 심리적 삼위일체론(psychologische Trinitätslehre)을 극복하고, 동방정교회 중심의 사회적 삼위일체론(soziale Trinitätslehre)을 주장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몰트만은 '페리코레스시스'(περιχωρησις, perichoresis)의 개념을 통해서 정치신학, 공적인 신학(theologia publica)이 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광미숙 박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과 무관하게 거룩한 천상에 홀로 거하시는 절대적 지배자로 이해할 경우, 의사소통의 단절 속에서 타자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적 자세를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세 위격들,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상호 간에 사랑의 사귄과 영원한 자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일체를 이루시는 분으로 이해할 경우, 사랑과 자유, 평등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인간사회 공동체에 실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단일신론에 의거하여 절대주권을 가진 초월적 지배자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삼위일체론에 입각하여 사랑의 사귄과 영원한 자유, 평등한 관계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느냐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생태학적 태도의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광미숙, 2010: 10-11).

광미숙 박사의 기술에서 이러한 견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상호 간의 내주와 이 내주를 통해 나타난 영원한 사랑의 사귄과 일체를 페리코레스시스라고 한다. 특히 세 위격들 사이의 친교를 사랑과 나눔, 섬김과 평등의 친교로 이해하는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공동체성의 상실로 인해 고심하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사랑과 자유, 평등에 기초한 인간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동기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적, 윤리적, 생태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신학적, 실천적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곽미숙, 2010: 99). 다니엘 미글리오리(Daniel Migliore)도 삼위일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의 심연적 문법(the depth grammar of the doctrine of Trinity)’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자기 나눔(self-sharing), 이웃 돌보기(other-regarding), 그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랑(community-forming love)’이 그것들이다.”(Migliore, 1991: 64.; 임성빈, 2017: 163 재인용).

사실 교회사적으로 종교개혁<sup>83)</sup>을 주도하였던 마르틴 루터의 경우도 ‘이신칭의’만을 얘기하지 않다는 점이다. 루터(Martin Luther)의 신학은 칭의에만 머물지 않고, 칭의를 넘어섰다(beyond)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루터는 칭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칭의를 넘는 행함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루터는 1535년 9월 11일에 쓴 로마서 3장 28절에 대한 ‘신앙에 관하여’(de fide)란 그의 71조항으로 된 논박문 가운데서 태제 25-28에서는 오직 신앙만이 의롭게 만든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그는 진정한 신앙에 대한 해석적 설명을 곧 바로 이어지는 태제 29-39에서는 행함에 대하여 강조한다.”는 지적한다. (김옥순, 2010: 298, III부 6장 27번 각주, M. Luther, "De Fide" in WA 39.1, 46 u. 44ff 참조).

참고로 권연경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오늘 이 땅에 루터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는 갈라디아서 대신 야고보서를 깃발로 들었을 것이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구호를 교회 대문 앞에 붙이지 않았을까?”(권연경, in 강도현, 2017: 64).<sup>84)</sup> 톰 라이트(N. T. Wright)는 단도직입(單刀直入)적으로 “이신칭의는 하나님

83) 참고하라. “종교개혁은 선행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개념 전체를 타파했고, 이로서 자선을 행하려는 최대의 통속적인 동기를 제거하고 말았다. 도리어 자선은 자기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이웃 사랑의 진정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자선은 자기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가져다 준 자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다.”(이상규, 2009: 180); 김흥기는 “열린 복음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구원의 교리를 극복하려고 한다. “역신학적 사관을 통칭할 때 필자는 열린 복음주의라고 명명하고 싶다. 칭의와 거듭남과 구원의 내적 확신을 강조하면서도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경건의 수련과 사랑의 수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화를 포함하는 복음주의이면서도, 그것이 개인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참여를 통하여 정치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나눔과 분배를 통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가는 사회적 성화의 차원에 까지 열리는 복음주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으로 출발하여 이성적인 신학함을 추구하는 열린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김흥기, 2008: 9. 강조는 본 연구자).

84) 신학적 입장이 우리와 좀 거리가 많이 있지만, 한국기독교연구소의 김준우 선생의 다음의 지적은 일부 유효하다. “‘믿음을 통한 구원(以信稱義)의 교리가 그 본래의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 마치 불교에서 힘겨운 고행 대신에 손쉬운 염불을 택한 구원의 수단처럼 되어버린 때문이다. 칭의(Justification)의 목적은 정의 실천(doing justice)이다(롬6장)”(김진우, in Spong, 2002: 12, 김준우, “「21세기 기독교 총서」를 발간하면서” 7-14 참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미리 그들을 바로잡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고 있다.(Wright, in Walton, 2018: 327).

### 3 인간론(人間論)

형상(Image)은 사명, 즉 소명이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질서를 세상 속에 반영하고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창조주에게 돌리는 각진 거울(an angled mirror)이 되라는 부르심이다(Nicholas Thomas Wright, in Walton, 2018: 328).

인간의 영적인 차원과 사회-경제적인 차원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의 죄나 구원은 개인적이며 영적인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다.(강남순, 2018: 42).

인간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무슨 존재인가”라는 물음일 것이다. 존 스토틀 목사님이 지적하였던 것처럼 인간을 더 높이 평가할수록 더 섬기길 원하기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선 사업(즉,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고무된 사역)은 그들[人間]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좌우된다. 그들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수록 우리는 그들을 더 섬기기 원할 것이다”(Stott, 2005: 45).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하나님의 모상[模像])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Stott, 1997: 55).<sup>85)</sup>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인간은 전인적 존재(holistic being)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단지 영혼,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할뿐이거나, 육체, 그들의 음식, 의복, 주거지와 건강만을 보살펴야 할뿐이거나, 사회적 존재, 그들의 사회문제에만 열중해야 할뿐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존재”라는 것이다(Stott, 1997: 55-56).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구체적으로 ‘공동체 속의 영육’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존 R. W. 스토틀는 이에 대해 다른 자신의 저서인 『존 스토틀의 균형 잡힌 기독교』(Balanced Christianity)<sup>86)</sup>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이며 육체적이며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공동체 속의 영육’(a body-soul-in-community)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그의 일부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전적인 복지, 즉 그의 육체와 영혼과 사회적인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Stott, 2011:

85)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나무나 돌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형상이 필요 없다.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Bell and Golden, 2011: 55).

86) 이 책에서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지성과 감성(Intellect & Emotion), 보수와 진보(Conservative & Radical), 형식과 자유(Form & Freedom), 복음전도와 사회참여(Evangelism & Social Action)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균형(Balanced Christian)을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Stott, 2011).

78-79). 하나님의 형상인 “공동체 속의 영육”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된다. 크리스티안 D. 폴(Christine D. Pohl)도 교회를 통한 ‘손대접’의 전통을 통해서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교회사 대부분에 걸쳐 손대접은 인간의 육체적, 사회적, 영적 존재 및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것은 나그네의 육체적 필요인 음식과 쉼터와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또한 그들의 가치와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Pohl, 2002: 20).

인간과 관련 있는 죄(罪)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죄를 이해할 때에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 받을 수 있다면[‘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신앙[믿음]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구조적 차원[社會的構造的次元]에서의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L. 왓슨과 더글러스 믹스(David Lowes Watson & Douglas Meeks)는 죄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만 축소하여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의 사회적 메시지를 평이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개인적인 죄는 물론 이거니와 구조적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와 성도는 구조적 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도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부분의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구조 악(構造惡, Structural Evil)의 제거나 변화는 개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끝나는 차원을 넘어 그 현상학이 매우 복잡다단(複雜多端)하여 개인적 차원을 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김흡영, 2008: 48-49)는 점을 인정하고 또 지적하였던 것이다. 제프 반더스텔트(Jeff Vanderstelt)가 자신의 저서인 『복음의 언어』(The Gospel Fluency)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계좌가 ‘0’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더 나아가 우리 의의 계좌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기준이다.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분의 영광이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 하신다.”(Vanderstelt, 2018: 99).

#### 4 기독교론(基督論)

기독교론을 보기로 하자. 톰 라이트(N. T. Wright) 교수는 자신의 책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Simply Jesus)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는 정말 누구였고, 정말 무슨 일을 했고, 그 일이 어떤 의미이며, 왜 중요한가? 나는

이러한 예수에 대한 질문이 삶의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사생활에만 아니라 정치 생활에도 중요하고, '종교'나 '영성'에만 아니라 세계관과 문화와 정의와 아름다움과 환경과 우정과 학문과 섹스 같은 인간의 모든 활동분야에도 중요하다. 안도가 될지 실망이 될지 모르지만, 지면상 여기서 모두 다룰 수는 없다."(Wright, 2013: 28).<sup>87)</sup> 이러한 지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생애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使役)을 볼 때에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에 대한 이해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救世主)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主人)이시고 스승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섬기기 위하여 낮아졌다. 그는 작고 약하여 보잘 것 없게 되었다. 그는 우리의 고통과 소외와 시험을 맛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굶주리는 자들을 먹이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킴으로써 그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代贖物)로 주려고 왔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스토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예수님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말과 행위 그리고 복음전파와 동정에 찬 보사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 왔는가. 그의 행위는 말씀을 표현했으며, 그의 말씀은 행위를 설명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결합하셨던 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Stott, 1997; 60). 스토트는 또 다른 자신의 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섬김과 증거는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 말이다. 그래서 성서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아코니아'(diakonia, 섬김)와 '마르투리아'(marturia, 證據)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쌍둥이."이다(Stott, 2005: 57). 다음의 진술 또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사역에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4장의 취임 연설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밝히셨다. 예수님의 사명의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취임연설에서 예수께서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푸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히신다. 예수가 가르치고 증언한, 밝아 오는 새 시대는 정의 위에 세워진다. 아무리 많은 해석학적 기교를 동원

87) "예컨대 상환 불능의 터무니없는 빚을 면제해 주는 희년 프로젝트, 저소득 가정이나 노숙자에게 수용시설을 제공하는 주택신탁, 당장의 이익을 위해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창조세계를 잘 돌보는 지역별 친환경 농업프로젝트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기독교의 '선행'이라는 개념을 좁은 틀 안에 가두었고, 그래서 선행은 단순히 '윤리적 명령을 지키는 일'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신약성경에서 '선행'이란 크리스천들이 더 넓은 사회 안에서 그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일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주권이 실행되는 방식이다."(Wright, 2013: 342).

한다 해도 복음서들에서 사회정의에 관한 예수의 관심을 제거할 수 없다”(Bouma-Prediger, 2011: 309).

오늘날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좌파인가 우파인가라는 논쟁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할 경우 예수 그리스도는 우파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좌파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다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좌파로 해석하면 극단적으로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h)와 같이 사회복음주의 운동으로 갈 수 있으며, 반대로 극단적인 우파로 해석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 개인 중심으로 해석되어 사회적 책임과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는 김세윤 박사가 지적한 것처럼 구원파 교리와 비교해 봐도 비슷한 모양을 보일 것이다).<sup>88)</sup>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정의로운 관심 즉 이 사회의 우파와 좌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좌파냐 우파냐? ... 그는 또한 우파와 좌파의 고유한 관심들을 통합한다. 왜냐하면 그는 우파와 좌파가 이탈하는 바른 노선(“나는 길어요”)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파에서도 할 수 없고 좌파에서도 할 수 없는 바, 좌파와 우파 모두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관심에 대해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 어쩌면 “사회적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해야 하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하기 때문에, 또는 근본주의자를 논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Kreeft, 2010: 165-167).

피터 크리프(Peter Kreeft)는 보수주의자(우파)든지 자유주의자(좌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주의”(主義, -ism)에 절대로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크리프에 의하면 주의(主義)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모든 명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가두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순전한 그리스도뿐이며, 그 순전한 그리스도는 영혼과 더불어 사회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지적한다(Kreeft, 2010: 167-169). 다음은 랍 벨(Rob Bell)과 돈 고든(Don Golden)이 자신들의 책에다 쓴 내용이다. “예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예수는, 개인을 노예화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에 대한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예수는, 복음을 창조 세계 전체가 창조주와 화해하는 것으로 전하지 않고 죄를 처리하는 과정으로 축소시키

88) 다음도 참조하라. “월라드는 복음이 구원으로 축소되고 구원이 개인적 죄 사함으로 축소된 것을 죄 관리의 복음이라고 부르면서 강력히 비판한다.[Willard, 1998: 35-59] ... 이제 그[고인이 된 달리스 월라드 목사]는 비판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죄 관리의 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는 것 말고는 중요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가정한다. ... 이런 복음은 죄를 위한 약간의 피만 원할 뿐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흡혈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Willard, 1998: 408 주 8에서 인용]”(McKnight, 117-119).

는 교회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예수는 종교적 절망에 빠진 교회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종교적 절망은 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냥 조용히 착실하게 살면서 '언젠가는'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라고 노골적으로 혹은 은근하게 가르친다.”(Bell and Golden, 2011: 254-255).

## 5 성령론(聖靈論)

성령론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성령론에 대해서 다음을 지적한다. 성령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 사역에만 협소한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성령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했다. 성령은 정의의 영이요, 평화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고, 창조세계를 보전하고 새롭게 하는 영이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영혼의 중생이나 은사 혹은 개인적 성화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정의를 심고 평화를 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더욱 중요하게는 전체 피조세계를 구원해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데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도영, 2017: 129).

삼위일체의 삼위(三位)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카운슬러(counsellor: 保惠師)가 되어주신다. 삶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와 욕구(problems & needs)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코이노니아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이노니아(κοινωνία)라는 용어는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Luke)가 예루살렘 교회를 묘사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코이노니아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交際]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Stott, 2005).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떤다'(행 2:42) 삶을 살았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우며 교제의 삶을 살았다. 연구자에 의하면 코이노니아는 신약에서 어근 koinon(κοινων, 코이논)을 연구해 보면 이 단어로부터 형성되거나 형성된 단어들 중 상당히 많은 것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실제적인 사회 경제적 관계를 의미하거나 그와 관련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코이노니아와 관련 용어들은 실제적이고 종종 많은 희생이 드는 나눔을 나타내는데, 이는 보통 '교제'로 통용되는 무미건조(無味乾燥)한 형식적인 '함께 함'(togetherness)과는 거리가 먼 개념임을 가르쳐준다고 한다(Wright, 1991: 118). 바로 성령의 사역인 코이노니아(교제, 친교)에 대사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진은 코이노니아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한다. “먼저 수직적인 코이노니아,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수평적인 코이노니아이다.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교제를 가능케 해주는 수평적인 교제를 말한다. ... 마지막으로 대사회적인 코이노니아가 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가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이도영, 2017: 348-349).

참고로 사회봉사 실천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심을 지적하기도 한다. 교회 사회봉사의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손인웅은 (a) 사회봉사의 신학적 원리: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b) 사회봉사의 원형(archetype):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c) 사회봉사 실천의 원동력: 성령을 제시한다(손인웅, 2001: 37-42)

## 6 구원론(救援論)

성경의 '구속(救贖, redemption)'이라는 개념도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분리, 즉 정치적 관심의 실종을 초래한 중대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종종 하나님이 그분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목적은 구속이라고 표현한다. 우선 '구속'은 영혼뿐 아니라 몸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혼뿐 아니라 삶 전체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다.(김근주, 2017: 28).

구속과 관련해서 구원론<sup>89)</sup>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접 사건과 더불어 회심(悔心, 悔改, metanoia)<sup>90)</sup>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근주 박사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는 간단한 기도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18장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나와 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믿는 삶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낯선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의 실질적인 내용이다.”(김근주, in 강도현, 2017: 111). 한완상 선생님도 같은 지적은 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추상적이고 쉽게 이해한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고통과 고난, 비움보다는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는 대속신앙만 너무 관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비움의 본을 따르지 않고서 교리적인 고백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89) “구원의 전통을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인간의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것은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가를 정의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였다. 잔혹한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넓은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은 잘못된 행위로부터의 구원이었다.”(Volf, 2014: 55).

90) “당시 세례란 로마식 체제가 당연시하던 노예제도를 거부하고 평화주의자가 되며 가난한 이들을 환대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식 표명이었다.”(Borg and Crossan, 2011: 57. 이정배, 2015: 52 재인용).

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차원, 그것도 개인 영혼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 체제를 다 감동적으로 바꾸는 것이다.”(한완상, in 강도현, 2017: 173-174).

회심한다는 것의 의미는 180o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관점[世界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소저너의 짐 월리스(Jim Wallis)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회심하는 것은 개인적 자아와 문화적 눈매를 모두 극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회심의 통전적 의미를 회복하자”고 한다(Wallis, 2008: 279). 월리스가 회심의 통전적 의미를 회복하자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나는 철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격적 측면이든, 영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이든 말이다.”(Wallis, 2008: 32).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관점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월리스에 따르면, “제도, 체제, 사회를 그 희생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하신 방식을 좇아, 경제적으로 좌절한 사람들을 감싸 안고 종 됨의 자리로 내려서는 것이다.”고 지적한다(Wallis, 2008: 118).

성도의 구속의 결과 얻는 칭의(稱義, Justification and Righteousness)의 성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찾아 볼 수 있다.<sup>91).92).93).94)</sup> 존 하워드 요더(John H. Yoder)는 칭의(Justification)가 단순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차원을 지닌다고 말한다.

---

91) 다음 참조. 벨리-마티 카르카넨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칭의는 신자들의 교제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연합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공동체적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Veli-Matti Kakkäinen, in Beiby and Eddy eds., 2015: 360);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김세윤 박사는 ‘실체화(實體化, actualization)’라고 표현했습니다.”(손희영, 2017: 143).

92) 앤드류 커크(Andrew Kirk)는 성경 속에 나타난 의(justice)의 다섯 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이승장, 2007: 280 재인용).

- a) 의란 율법을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다.(시72:1-2; 잠언29:4)
- b) 의는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사5:7)
- c) 의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시72:4)
- d) 의는 개인적으로 완전하게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다.(출20:16-17)
- e) 의는 불경건한 자의 구원도 포함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회에서의 정의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의로 위지기를 요구하신다.(사45:21)

93) “기독교가 육체적, 사회적 필요는 배제한 채 ‘영적 필요’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후 종착지에만 몰두할 뿐 현세에 난무하는 심각한 사회적 불의는 못 다루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기독교는 ‘나’와 ‘내 영혼’, 그리고 ‘나의 영적 생활’과 ‘나의 영원한 본향’에만 집중할 뿐, 인생에서 마주치는 실제, 즉 사회와 지구촌에 만연한 구조적 불의, 구조적 가난, 구조적 생태위기 같은 역기능들은 다루지 못한다. 기독교가 이 세대의 절박한 문제들에 이러한 식으로 대응하여 신뢰를 잃어가는 동안,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 청년들의 신앙은 더욱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고 개인화되다가 결국에는 희미해지고 만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McLaren, 2010: 54).

94) “사실 마태복음 전체가 철저히 구약의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아니 복음서가 다 그러하며 바울서신이 다 그러하다. 이 맥락을 무시해왔기에 이제까지 신약 읽기가 비역사적인 개인 교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원이 같은 ‘칭의’(justification)와 ‘정의’(justice)가 완전히 분리되고 의미가 모호해지면서 구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법정적 칭의’ 혹은 ‘사법적 칭의’ 개념이 만연하게 되었다.”(김근주, 2017: 31).

그렇다고 해서 칭의가 사회적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가 개인적 차원의 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조심스럽게 존 H. 요더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두 차원들 중의 어느 하나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우리의 논증이 교정적 의도를 가질 것임을 염두에 둘 때, 칭의가 오직 사회적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 기존의 개인주의적 칭의론의 오류를 뒤집으려는 것이 필자[John H. Yoder]의 의도가 아님을 다시금 밝혀 두어야겠다. 필자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통적 교리를 논쟁의 상황에 적용하는 특정한 방식, 곧 윤리적 사회적 차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 칭의 개념을 활용하려는 입장이다. 잊혀진 사회적 차원들을 재발견한 학자들을 연결한다고 해서 필자가 칭의의 개인적 차원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근 몇몇 서구적 전통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칭의의 개인적인 차원을 다른 차원들과 구분하여 추상적으로 다루는 것이 과연 칭의의 개인적 차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인지 의심스럽다.”(Yoder, 2007: 369-370, 11장 2번 각주).

칭의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다른 연구자들에게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칭의를] 개인적인 구원 체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Bouma-Prediger, 2011: 310).<sup>95)</sup> 그렇다면 요더가 칭의에 있어서 사회적 차원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칭의를 개인적 차원에서 강조할 경우에 칭의의 이면(裏面)에 있는 윤리적 사회적 차원들을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칭의를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칭의의 개념도 더불어 강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칭의는 윤리적 사회적 차원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차원의 칭의는 칭의 자체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책임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아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자연스럽게 개인의 성화의 삶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하는 사회의 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화(聖化)의 삶은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지속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화(榮化)의 삶으로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

95) 칭의 논쟁과 관련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다음과 같다. “바울 서신에 7번 등장하며(롬3:22, 26; 갈2:16[2회]; 3:33; 엡3:12; 빌3:9) 전형적으로 칭의와 관련된 상황에서 등장하는 피스티스 크리스투(pistis Christou, πιστις χριστου)라는 문구(혹은 약간 변형된 표현들)는 문법적으로 모호하기 때문에 목적격 소유격(즉, ‘그리스도를 믿음’[Faith in Christ] 혹은, 어쩌면 일종의 근원을 나타내는 또 다른 소유격(즉, ‘그리스도에 게서 오는 믿음’[the Faith which comes from Christ])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 어구에 인간학적 해석으로도 알려진 목적적 해석을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믿음’(Gauben an Christus)이라는 구어체로 번역한 이래로, 이 해석은 이신칭의 교리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되어 거의 450년 동안 프로테스탄트 해석을 지배했다.”(Beiby, Eddy, and Enderlein, 2015: 114).; “피스티스 크리스투(pistis Christou, πιστις χριστου)”에 대한 연구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며,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삶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한 삶을 믿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미의 영화가 비록 이루어지는 것(完成)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칭의로 끝나지 않고 성화의 삶과 더불어 영화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救主·救援者)로 고백하는 믿음이란 구체적인 올바른 행위[正實踐, ortho-praxis]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며 또 칭의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을 지닌다면 성화와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사도 야고보의 생각은 분명했다. 그의 과감한 요구를 들어 보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2:18). 당신의 믿음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이다.”(Stearn, 2010: 13. 강조는 본 연구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not of the world) 그럼에도 “세상에”(in the world) 살고 있고, 단지 세상에 살 뿐 아니라,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 받은(sent into the world) 사람들’이다. 세상은 제자들의 삶의 장소이며 일터이다. 세상에 부름 받은 것은 세상으로 다시 보냄 받기 위한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강영안, 2012: 197).

칭의와 관련해서 다음의 사실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칭의(稱義)와 정의(正義)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 말이다. 칭의(Righteousness)라는 단어와 정의(Justice)라는 단어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헬라어 ‘디카이오수네’(dikaiosune, δικαιοσυνη 참고 dikaios, δικaios)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경의 의(義)의 개념이 정의(正義)의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 선교사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던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는 영어 성경이 헬라어 ‘디카이오수네’(dikaiosune)를 ‘의’(righteousness)로 번역함으로써 그리고 그 결과 내적이고 영적인 의를 사회적 관계에서의 외적이고 명시적인 정의(justice)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동안 얼마나 큰 해를 입혔는지를 지적하였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함정에 빠질 소지가 적는데, 그것은 ‘디카이오수네’를 번역할 때 ‘후스띠시아’(Justicia)라는 한 단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디카이오스’(dikaios)를 영어로 번역할 때 서로 다른 단어인 righteous와 just를 사용하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디카이오수네’는 ‘의’로 일관성 있게 번역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체덱’(tsedeq)은 ‘정의’와 ‘의’로 번역함으로써 그리고 정의를 외적이고 정치적인 프로그램으로 각각 나누는 정신적 분리 현상에 빠지게 했다. 그런데 이런 이분법을 수용하는 것은 복음을 포기하고 세속 문화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다.”(Newbigin, 2005: 169).<sup>96).97).98)</sup>

96) 히브리어로 ‘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단어가 동일하다.(Clairborne, 2013: 388, 6장 1번 주). 참고로 다음의 내용도 참조하라. “서양의 고대 사회와 중세 사회에서는 렐리지오(religio)라는 라틴어를 사용했다. 그것은 가족과 이웃, 통치자와 하느님에게 모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미덕을 가리켰다. 그 미덕을 갖추려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렐리지오

구속은 부활의 삶으로 연결된다. 부활의 삶이란 어떤가?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는 부활(復活)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활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위에 주님이신 예수님의 주권에 기초해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을 의미한다.”(Wright, 2009: 356). 그렇다면 진정한 부활도 마찬가지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경험은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강영안 교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크리스티아노스(Christ-ianos).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또한 우리는

---

오는 1200년경에 릴리전(religion)이라는 영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달라졌다.”(Morreal and Sonn, 2015: 23).

97)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 Δίκη)는 로마 신화에서는 유스티티아(Justitia)로 부활하는데 디케에서 성경에 나오는 칭의를 뜻하는 단어 디카이오스네(dikaioσune, δικαιοσυνη)가 파생되었으며, 유스티티아(Justitia)라는 단어에서 정의(Justice, 또는 Just)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안진태, 2001: 233 참조). “영어만 ‘의로움’(righteousness)과 ‘공의’(justice)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한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 다른 언어들은 오직 한 단어만 있다(예, 라틴어 ‘iustitia’) ‘의로움’은 개인의 도덕적 수준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고, ‘공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낸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문자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롬1:17)에 대해 말할 때, 바울은 두 단어의 뜻을 모두 함축한다.”(McGrath, 2004: 118. 24번 각주).; 다음은 ‘정의’에 대한 강영안 교수의 견해다. “구약성경에서 정의를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 있는데 ‘미쉬파트’와 ‘츠다카’입니다. 미쉬파트는 공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부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에서 봐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성이란 의미의 ‘미쉬파트’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정의는 ‘츠다카’인데, 이것은 특별히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이런 의미에서 정의는 ‘기득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편견된 사랑’(the biased love for the unprivileged)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말하는 정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일에서 공정해야 하면서도 분배와 관련해서는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자들은 조금 덜 갖게 되더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좀 더 주더라도 가진 자들에게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현대에 와서 하버드 대학교의 정치철학 교수였던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가 ‘최소 수혜자의 최대 혜택’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자체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법적인 방식으로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만 아니라, 타인의 공평과 필요를 고려하는 정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강영안, 2009: 308-309).

98) 다음을 참조하라(참고로 Theodore Jennings는 퀴어신학자여서 조금은 조심스럽다) “적어도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이래, 신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법과 정의라는, 정치적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실제로 대부분의 로마서 독해는 이러한 정치적 문제로부터 관심을 돌려 신과 관련된 개별 신자의 상황에 집중하게 했다. 이것은 또한 로마서가 정치적 텍스트보다는 먼저 종교적 텍스트로 읽혀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바울은 (또는 그 사안에 대해서라면 플라톤이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도) 아마도 이러한 이분법을 알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바울 논변의 정치적·철학적 성격은 시야에서 멀어져갔다. 그 결과, 로마서라는 텍스트는 협소하게 종교적 주제들에 국한된 교회의 책으로서 읽히게 된다. 실제로 이 과정은 ‘Justice’(정의)가 (또는 ‘injustice’ [부정의])가 영어 번역 텍스트에서 사라지면서 약화되었다. 정의나 부정의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의로움), ‘unrighteousness’(불의함) 그리고 ‘wickedness’(사악함) 같은 용어들로 대체되었고, 이로 인해 바울의 관심사에 내포된 정치적 의의는 종교성의 안개 뒤에 가려지게 되었다.(Jennings, 2018: 10-11).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다. Imitatio Dei, Imitatio Christi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존재가 규정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로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나 자신을 온전히 비워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셨으며 세상의 대속물로 목숨을 버리고 부활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현존하는 우리의 '구주'며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따르는 이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구주로, 주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범'으로 삼아,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섬기는 이로서 온전히 참여하는 일이다."(강영안, 2012: 108).

## 7 교회론(教會論)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회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 즉 어떤 형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 안에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다(Hauerwas and Willimon, 2008: 62).

교회(教會)는 헬라어 단어("ἐκκλησία") 그대로 "에크"와 "크레오"("ek"+"kleo", "out"+"to call", 즉 "εκ"+"κληω"="ἐκκλησία")의 합성어로 세상 밖으로 불으신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교회[세상 밖으로]로 부르신 것인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을 나누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훈련시키는 곳이다. 단순히 모여서 구원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간증하고 찬양하는 곳(장소)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도와주는 사역을 감당하라는 곳이다. 즉 교회는 사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고 공적 교회의 의미도 지닌다는 지적이다. 마틴 마티(Martin Marty)는 공적 교회와 사적 교회를 구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교회는 공적교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마티(Martin Marty) 같은 주석가들은 미국 교회가 '공적'(public)교회와 '사적'(private)교회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사적'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요 또 순전히 사적인 종교 영역에만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로 이루어졌다. '공적'교회(우리 두 사람이 속한 교파를 포함하여) 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의제를 들도 사회로 진출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실 사회의 구조 안에서 활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Hauerwas and Willimon, 2008: 42).

이러한 생각은 로널드 J. 사이더(Ronald J. Sider)가 자신의 책,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Genuine Christianity)의 제6장의 제목을 "몸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왜 사이더는 자신의 책의 한 장(章, chapter)에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일까? 개인적으로 사이더가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책임, 즉 우리의 필요(needs, wants, demands) 등을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몸과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는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는 교회를 의미한다(Sider, 1998: 제6장 참조).<sup>99)</sup> 그렇기 때문에 리처드 스티어스(Richard Stearns)도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교회가 정의를 촉진하고, 인간생명의 신성함을 드높이고, 약자들을 위해 싸우고, 세상의 지배적 가치 체계에 도전함으로써 사회변혁을 일으키도록 부름 받은 진정 혁명적인 기관이라면 사회정의 문제들의 전면에 나서야지 막차를 타서는 안 될 것 같다”(Stearns, 2010: 287). 릭 루소와 에릭 스완슨(Rick Rusaw and Eric Swanson)은 그들의 저서인,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The Externally Focused Church)에서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던 것이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기술해 보기로 하겠다.

1. 선행과 복음이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면 안 된다고 믿는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양쪽 날개가 필요하듯이,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 복음과 선행이라는 양 날개로 무장한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보살핌인 선행은 복음에 설득력을 더한다. 복음은 선행의 목적을 설명한다. 결국 복음과 선행은 예수님의 사역 전부이다. ... 2. 교회의 존재가 그 지역의 건강과 복지에 절대 필요하다고 믿는다. ...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과 누룩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는다. 그들은 사회사업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 그것[교회]은 ‘부름 받아 나온 이들’을 뜻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줄로 잘못 알아 왔다. 교회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지, 영향을 주어야 할 사람들로 부터 분리되라고 부름 받은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둔 채로는 소금과 빛과 누룩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 주후 150년 경, 한 그리스도인인 작가가 2세기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와 같다.”[Epistle of Mathetus to Diognetus, chapter 6, verse 25.]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사회의 영혼이다. 영혼이 신체로부터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체, 즉 껍데기만 남게 된다. ...

3. 봉사와 섬김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의 표현이라고 여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나누어 줄 때 가장 잘 성장한다고 믿는다. 섬김과 봉사가 교회의 성장 모델이며 성도들의 영성개발의 일부라고 믿기 때문에, 통상 교회 밖에서 선교와 섬김에 참여하는 회중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

4. 효과적으로 전도한다. ... 신시내티의 빈야드 커뮤니티 교회는 섬기는 전도운동

99)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각 지교회에서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로널드 J. 사이더(Ronald J. Sider)의 다른 책인 『물 한 모금, 생명의 떡』(Cup of Water, Bread of Life)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로 사이더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도와 사회적 관심을 결합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직하고 효과적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를 잘 모른다. 사람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극복해야 한다는 나의 신학적 촉구를 듣고 한 후에 ‘예를 들어 달라’고 말하기 일쑤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이다.”(Sider, 1999: 13).

(servant evangelism: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을 통해서 해마다 수백 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 창립자 스티브 쇼그렌(Steven Sjogren)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사회부터 섬기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결국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Rusaw and Swanson, 2008: 34-41).

영성(靈性, spirituality)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영성이라는 것도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분리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분리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드니 클랩(Rodney Clapp)의 기독교 영성에 대한 다음의 언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전적 기독교 영성에서는 신체적(개별적) 몸이 사회적 몸(social body)과 떨어질 수 없다. 신체적 몸과 사회적 몸은 계속해서 서로를 형성하고 능력을 주고받는다.”(Clapp, 2006: 106). 이학준 교수도 같은 의미의 진술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 개인의 영성 면에서 볼 때 공적 영성이란 객관화된 사고와 가치관으로 공동체의 여러 문제에 기독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이학준, 2011: 62).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영성에 대한 이해는 어떤가. 영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가? 클랩은 계속해서 오늘날의 영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지 다시 강조한다. “기독교 영성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방식은 현대의 소비 자본주의 영성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현대의 영성은 ‘사회적’ 윤리와 ‘개인적’ 윤리를 나눈다. 성에 대한 태도와 성적 행위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도덕의 문제다. 섹스를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인 문제다. 그러나 전통 기독교 영성은 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것처럼 쉽게 구획하거나 나눌 수 없다. 기독교 영성은 당사자들의 몸을 고려할 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사회적 몸인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다.”(Clapp, 2006: 106). 세릴 샌더스(Cheryl Sanders)도 영성에 대해서 같은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음주의가 교회와 사회에 내 놓아야 할 최고의 훈련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개인과 사회의 변화 모두를 충분히 수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Sanders, in Noll and Thiemann, 2012: 129).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여야 하는 걸까.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공적인 영성을 소유하게 되고 또 공적 성도로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학준, 2011: 64). 이를 소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만일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영성이 있다면, 사랑과 정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을 수 없다[는]”(최준식, 2010: 44) 것이다.<sup>100)</sup>

100) 한국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지적을 참조하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온갖 죄악으로 부패해버렸다. 기도하고 방언하며 성경 읽는 데는 열심인 듯 보이지만, 이 열심은 개인의 종교체험과 교회생활에 국한되어 있다. 지도자의 교만, 권력다툼과 분열 속에서 물질만능주의, 개교회주의, 성장주의에 몰입해버렸다. 소수의 권력자와 신학자가 진리를 점유한 상황에서 교회재정 횡령 및 거짓과 표절이 난무하고, 성적 추문부

## 8 종말론(終末論)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universality)이란 공적인 삶의 모든 부분, 즉 정치, 사회, 교육, 의료와 문화 분야에서 신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증거 해야 한다는 의미다.(Bewes, 1999: 162).

신약성서에서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이다. 소유격 ‘of’에 주목하라. 그러나 천국을 천당으로 오해한 사람은 of를 in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래서 천국을 ‘하늘에 있는 나라’(the kingdom in heaven)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천국을 마치 저 하늘 위에 있는 나라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천국은 ‘하늘의 나라’(the kingdom of heaven)이다. 나라는 나라인데 누구의 나라냐면 하늘의 나라라는 것이다. 하늘이 소유한 나라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을 대신 사용하는 대명사다. 그래서 천국(하늘나라)은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와 동의어다. 천국=하늘나라=하나님나라(신광은, 2014: 447).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sup>101)</sup>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휴거(擡舉, Rapture)로 인해 이 세상을 등지는 것으로 이해는 경향이 있다. 톰 라이트(Nicholas Thomas Wright)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지적한다. “빌립보서 3장에서처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실제로 교회 자체가, 천국의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Wright, 2009: 177).<sup>102)</sup>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가

터 살인에까지 이르는 범죄로 심각한 영성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영성 위기는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정 교과서’ 등 현 정부의 불의한 정책과 잘못된 국가운영에 대해서도 침묵함으로써 ‘사회적 영성’마저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강호숙, 2016: 48).

101) 다음도 참조하라. “기독교 종말론에서 ‘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세의 일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현세의 삶과 역사는 하찮은 것이라는 이원론에 빠질 수 있다.”(임택규, 2016: 88-89; Migliore, 2012: 556.; 김동건, 2011: 267 참조).

102) Tullian Tchividjian이 자신의 책, 『더 크리스천』(Unfashionable)에 기술한 내용이다.

하나님이 현재의 세상을 남김없이 파괴한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말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3:7)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 한 목사는 이 구절을 놓고 고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현재 세상과 새 세상 사이에 연속성은 없다. 새 세상은 말 그대로 새 것이다. 옛것이 지나간다. 옛것은 다 불타고 녹아 버린다.” 이 목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문장(10절)을 이처럼 비약해서 해석하곤 한다. 그러나 이는 석연치 않은 번역의 책임이 크다. 킹 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한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 버릴’ 것이다.” ‘타 버린다’는 표현은 킹제임스성경을 기반으로 한 최근 역본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신약학자 토머스 슈라이너(Thomas Schreiner)는 실제로 “일부 헬라어 사본들이 이 표현(카타카 세타이, kataka setai)을 쓰고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믿을 만한 사본들은” ‘찾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표현인 헤우레스 세타이(heureth setai)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과 같은 영역 역본들은 이 의미를 차용하고 있다.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ESV)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리라”(NIV)

이런 번역은 지구의 소멸이 아닌 일종의 정화를 함축한다. 신약 학자 피터 데이비즈(Peter Davids)는 베드로후서 3장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저자는 하나님이 순수 지으신 피조 세계를 미워하지 않는다. 물론 그는 이 세상이 정화되어야 한다고 믿지만, 이 정화는 주로 이 세상을 오염시킨 인간 악의 정화를 의미한다.” ...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기록된 세상의 멸망(노아의 홍수)도 파괴가 아니라 정화였다.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하고 기도하지, ‘우리가 한때 땅으로 도망쳤던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Wright, in Borg and Wright, 2001: 306)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천국’의 통치, 즉 천국에 사는 분의 통치)를 의미한다. 예수님에 의하면 이 통치가 현재 세계인 이 ‘땅’에 침입했고, 또 침입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그 구절을 삭제할 권한이 없고,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고 가정할 권한도 없다.”고 톰 라이트는 지적한다(Wright, 2009: 310).<sup>103)</sup>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하나님의 都城)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위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일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都城, 새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거하는 곳과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을 지닌다면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만 하겠는가. 네덜란드의 총리를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자유대학교 교수취임 강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신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There is not one square inch of the entire creation about which Jesus Christ does not cry out, “This is mine! This belong to me!”(Mouw, 2004: 167; Bratt, 1998: 488; Mouw, 2008: 124 재인용)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의 지적대로 이 세상은 ‘모두 다’[이 世上全部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임(臨)하여야만 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도 통치의 의미를

토머스 슈라이너는 이 구절과 그 외에 비슷한 구절들을 신약의 전체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학자들은 신약이 현재 우주의 소멸과 새 우주의 창조를 말하느냐, 지구를 포함한 현재 우주의 변화를 말하느냐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이 구절에 대한 다수의 해석, (2) 로마서 8장 18-25절, (3) 지구의 회복에 관한 많은 구약의 예언들, (4)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육신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 (5) 크리스천들의 부활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점(고전 15:12-58). 하나님은 언제나 피조 세계 중 죄로 망가진 부분을 파괴한 뒤 다시 창조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점 등이다.” ... 하나님은 이 세상의 미래를 노아 시대와 같은 패턴으로 이끄실 것이다. 노아 시대의 왜곡되고 악한 것은 모조리 쓸려 갔지만 모든 것이 소멸되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우주를 없애시지 않는다. 대신 새롭게 하고 구속하고 부활시키실 것이다. 랜디 알콘(Randy Alcorn)의 말처럼, “우리는 동일한 사람으로서 새로워질 것이고 새롭게 단장한 이 지구에서 그대로 살 것이다.”(Tchividjian, 2014: 90-95).

\* 다음을 참조하라. ESV Study Bible (Wheaton, IL: Crossway, 2008), 2422-2423에 실린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석. 이 주석은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9. (2006), 449-488에 실린 Douglas J. Moo, “Natural in the New Creation: New Testament Eschatology and the Environment,” [www.estjet.org/files/JETS-PDFs/49/49-3/JETS\\_49-3\\_449-488\\_Moo.pdf](http://www.estjet.org/files/JETS-PDFs/49/49-3/JETS_49-3_449-488_Moo.pdf)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The Pillar New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274에 실린 Peter H. Davids, The Letters of Peter and Jude. ESV Study Bible (Wheaton, IL: Crossway, 2008), 2422-2423에 실린 베드로후서 3장 10절 주석; 그리고 Randy Alcorn, Heaven for Kids (Carol Stream, IL: Tyndale, 2006), 53.

103) 리처드 스텐스(Richard Stearns)의 다음의 구절도 참조하라. “오늘날 지구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20억에 이른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켰는가? 물론 변화시켰다. 하지만 우리의 비판자들은 그 변화가 언제나 좋은 쪽은 아니었다고 금세 지적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뜻하시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는가? 우리는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좋은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한 사절이었던가? 전 세계 교회들이 되풀이하는 주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우리는 과연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온전한 복음은 미래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지금, 먼 하늘나라가 아니라 여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알리는 비전이다.”(Stearn, 2010: 17).

지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생활, 예술 활동, 사업, 교육, 정치, 그리고 다른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적 방침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Mouw, 2008: 125).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강영안 교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오심은 [폴] 리콤프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넘침의 윤리’(the ethics of superabundance)를 열어 보인다. 넘침의 윤리는 ‘너희는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내 주어야 한다’는 윤리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가서 마찬가지로 행하라’라고 명령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로운 신에 의해 사랑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세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것도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우리가 살도록 보냄 받은 세계를 돌보고 내어줄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강영안, 2012: 148-149).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sup>104)</sup>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하면 우리 머리에서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식(安息)과 샬롬(Shalom, 平和)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참된 안식이 있으며 참된 샬롬이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안식과 샬롬을 맛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강영안 교수는 또 다른 자신의 책에서 이에 대해서 나나 로빈슨(Gnana Robinson)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만일 쉼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 정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날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 착취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짐이 될 뿐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쉼의 날이 불안의 시간이요, 의기소침의 시간이요, 자기모멸의 시간이다. ...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가 없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의 명령이 지켜질 수 없다.”(강영안, 2009: 170 재인용; 강조는 본 연구자).<sup>105)</sup>

104)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거룩한 덮개(Sacred Canopy)아래 놓아 있는 것이다. 그 덮개는 매우 넓은 것이어서 모든 사회적 삶과 정치, 경제, 가정과 개인적인 삶과 우리의 자연과의 관계성을 포괄한다. 그러므로 문화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이다. 이른바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앙과 문화는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에 대한 신앙적 삶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우주적인 청지기라는 것이다.”(임성빈, 2017: 266).

105) “샬롬”은 단지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질서 있는 평화와 정의가 있는 공동체의 상태이다. 이러한 공동의 집단의식은 신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공동체에서 생필품 부족을 겪는 사람이 없게 하고자 한 1세기의 기독교에서 볼 수 있다.(Miller, in Miller and Delaney, 2015: 32-33).;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구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안식의 날에 해야 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전통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을 찾거나, 교도소, 노약자 시설을 찾는 것, 또는 정말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날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조그마한 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강영안, 2009: 170).

진정한 안식도 무엇보다 사회적 정의가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정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빛 좋은 언어적 구술[修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샬롬은 무엇인가. 검사 출신의 법학자인 경북대학교 김두식 교수는 샬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샬롬은 모든 인간, 그의 신체와 영혼, 공동체, 집단, 자연 그리고 인간 주변의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구원과 안녕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 평화란 예수 믿어 얻게 된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 사회복지적 필요까지 모두 충족된 총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샬롬의 어원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wholeness)에서 출발했다고 이해합니다. 샬롬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빈곤과 불안에서 해방된 개인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긴 과정입니다. 흔히 정의와 평화의 충동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가 논의되곤 하지만, 히브리어 샬롬은 정의와 평화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시편 85편 10절은 이 상태를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김두식, 2010: 278).

윌리엄 R. 밀러(William R. Miller)는 샬롬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共同體性)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샬롬’은 단지 개인적인 마음의 평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도하시는 질서 있는 평화와 정의가 있는 공동체의 상태이다. 이러한 공동의 집단적식은 신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공동체에서 생필품 부족을 겪는 사람이 없게 하고자 한 1세기의 기독교에서 볼 수 있다.”(Miller, in Miller and Delaney, 2015: 32-33).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이자(시89:14; 97:2)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사회 속에서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이차적이거나 주변적인 사안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진리이며, 따라서 교회의 중심 되는 사안이다.”(Snyder, 2005: 13)고 말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책은] 생태학적인 문제, 경제문제, 국제정의의 문제 등이 성경적 교회 상에서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내 믿음을 반영한다. 이는 우리가 열망하며,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질서에도 중요한 문제들이다.”(Snyder, 2005: 8)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자면 “천국의 목적은 공의이며, 공의는 사회적[인].”(Snyder, 1994: 77) 것이다. “공의에 대한 성경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개인과 사회와 인종과 국가 사이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가족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관계에서도 공의에 대한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한 인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공의와 자비와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집과 국가 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Snyder, 1994: 78).

참고로 지금은 비록 불가지론자로 돌아섰지만 바트 D. 어만(Bart D. Ehrman)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지양(止揚)해야 할 것들 중의 하나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음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종말론적 관점이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다. 하느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자칫 사회적 태만과 무책임의 초

래한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악을 직접 처리하려 하지 않고, 때가 되면 전능자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고 미뤄버리는 태도다. 세상의 문제들과 직접 맞닥뜨려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느님에게 전가해버리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킬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한다".(Ehrman, 2016: 338).

### Ⅲ 나가는 말

#### 1 요약하기

조직신학의 일반적인 목차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찾아보았다. 연구자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영역에서 도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개인들의 신학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 내용들을 취사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지닌 문제점의 일부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유산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극적인 실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을 파괴하지 않는 가운데 아름다운 유산인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은 확실한 진단의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물론 이들 연구[해석]에 대해서 약간의 필터링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말이다.

산업화 시기 개신교에는 두 가지 형태의 운동이 있었다. 하나는 '민중교회운동'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성향의 운동이고, 하나는 보수적 개신교가 주축이 된 '교회성장운동'이다. 이 두 운동은 이념과 성향과 활동 내용이 달라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둘 다 개신교뿐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민중교회운동은 산업화 시기 소외된 사람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현실참여'에 비중을 두었다. 반면, 교회성장운동은 개인의 영성 문제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안처' 역할을 했다. 그 방향은 달랐지만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민중교회운동과 개인의 삶에 위안을 주려 했던 교회성장운동은 모두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는 당시 개신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백중현, 2014: 204).

#### 2 사족달기

전술한 내용과 중복된 감이 없지 않지만 유원근(개인적으로 저자의 '기독교=민주주의'식의 환원주의적 기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과 김세윤 교수의 다음의 지적들도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극적 모습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곧 바로[極端的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正體性)'과도 어느 정도 관련될 수 있다는 지적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출판된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는 책에서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한 완상 박사는 사도신경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친 역사적 예수의 공생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한 다음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고백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저도 평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성서의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유는 이 땅에 창조질서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였고, 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왜 이 본질적인 요소를 싹 빼 버려 노른자위 없는 계란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 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로마제국을 숙주로 삼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의심을 피해야 했고, 이를 위해 일부러 그것을 누락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트로이 목마 전략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혁명적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후 2천 년 동안 기독교는 적을 속이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자신도 그러한 자신의 전략에 속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빠진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로 고백해 왔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에 생략되어 있는 기독교의 핵심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예수는 창조질서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일을 하시다가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기독교가 합의하여 이런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어려우면 사도신경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유원근, 2010: 33-34).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 받는 것이며, 그렇게 한번 얻은 구원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다.’라는 ‘구원파적 복음’이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당당히 가르치는 모양인데,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정통 교단들의 많은 목사들도 사실상 같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김세윤, 2013b: 20-21).

“칭의론을 법정적 의미로만 해석하여, ‘무죄 선언’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관계론적으로 제대로 해석하여 실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칭의를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기’의 뜻으로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또 기능하게 한다는 것이다.(김세윤, 2013a: 285-287).

## 참고문헌

- 강남순 (2018). 『젠더와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의 재구성』. 개정판1쇄. 파주: 동녘. 제3장. 페미니즘 서설. 42-89
- 강도현 역음 (2017). 『터닝 포인트: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교회가 돌아설 길을 묻다』. 서울: 뉴스앤조이. "터닝포인트 2: 생각하는 신앙, 삶에 잇닿은 신학으로: 권연경 인터뷰". 44-76. "터닝포인트 3: 하나님나라 복음의 공공성 회복하는 교회로: 김근주 인터뷰". 78-114. "터닝포인트 5. '새 하늘, 새 땅' 일구는 살롬과 비움의 신학으로: 한완상 인터뷰". 148-187.
- 강영안 (2012).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파주: 한길사.
- 강영안 (2009).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서울: IVP.
- 강호숙 (2016). 『여성이 만난 하나님』. 파주: (주)넥서스.
- 곽미숙 (2010). 『삼위일체론: 전통과 실천적 삶』.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김근수 (2014). 『행동하는 예수』. 서울: 메디치.
- 김근주 (2017). 『복음의 공공성: 구약으로 읽는 복음의 본질』. 파주: 비아토르. "서론: 구약, 그 정치적인 말씀". 10-39.
- 김두식 (2010). 『교회속의 세상 세상속의 교회』. 서울: 흥성사.
- 김성건 (2011). 『한국교회의 현실과 쟁점』. 용인: 프리팅아카데미.
- 김세윤 (2013a). 『칭의와 성화』. 서울: 두란노
- 김세윤 (2013b). "제1장. 한국교회 문제의 근원, 신학적 빈곤". 강영안 외 공저 (2013).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묻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17-36.
- 김옥순 (2010). 『디아코니아학 입문』. 서울: 한들출판사.
- 김홍기 (2008). 『현대교회 신학운동사』. 서울: 한들출판사.
- 김흥영 (2008). "논찬: 유승무 교수의 '역사상의 불교권력'을 논하며." 한국기독교사교수협의회·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저. 『현대 사회에서 종교권력,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동연. 45-56.
- 남성현 (2016). "1장. 초기 비잔티움 제국과 그리스도교의 빈민을 위한 협력". 민유기·홍용진 외 공저 (2016). 『서양사 속 빈곤과 빈민: 연민과 통제를 넘어 사회적 연대로』. 서울: 책과함께. 19-51.
- 박승탁 (2010). 『교회와 지역사회 노인복지』. 파주: 교육과학사.
- 백중현 (2014). 『대통령과 종교: 종교는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서울: 인물과사상사
- 손인웅 (2001). "교회 사회복지 참여의 신학적 근거". 『교회의 사회복지 참여하고 실천하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사회복지위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손희영 (2017). 『광야와 하나님 나라』. 서울: (사)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 손용원 (2017). 『칼뱅과 공동선』. 서울: IVP.
- 신광은 (2014). 『천하무적 아르벵주의』. 서울: 포이에마.
- 안진태 (2001). 『신화학 강의』. 서울: 열린책들
- 유원근 (2010). 『성서, 민주주의를 말한다』. 파주: 살림.
- 이도영 (2017). 『페어 처치: 공교회성·공동체·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 새물결플러스.
- 이원규 (2009). 『힘내라, 한국교회』. 서울: 동연.

이학준 (2011). 『한국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이상규 (2009). "칼빈의 구호활동". 개혁주의학술원 편. 『칼빈과 사회』.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77-200.  
 이승장 (2007). 『다윗은 그 시대에』. 4판. 서울: ESP.  
 이정배 (2015). 『신학, 타자의 텍스트를 읽다』. 서울: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이택규 (2016). 『아론의 송아지』. 서울: 새물결플러스.  
 임성빈 (2017).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신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정원범 (2005). "교회의 사회봉사적 책임." 『신학과 문화』 14. 221-234.  
 최준식 (2010). "한국 종교, 어디까지 왔나?" 이찬수 외 저. 『한국종교를 컨설팅하다』. 서울: 도서출판모시는사람들. 25-74.

Bailey, Kenneth E. (2008). *Jesus Through Middle Eastern Eyes*. Downers Grove, IL: IVP. 박규태 역 (2016).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고대 중동의 삶, 역사, 문화를 통해 본 복음서』. 서울: 새물결플러스.  
 Barker, Ash (2009). *Make Poverty Personal*. Grand Rapids, MI: Baker Books. 박경희 역 (2010). 『개인적 빈곤 다루기』. 대전: 대장간.  
 Beiby, James K. and Paul Rhodes Eddy (2011). *Justification: Five Views*. Downer Groves, IL: IVP. 문현인 역 (2015). 『칭의 논쟁: 칭의에 대한 다섯 가지 신학적 관점』. 서울: 새물결플러스. James K. Beiby, Paul Rhodes Eddy, and Steve Enderlein, "1장 칭의 개념의 역사". 21-77. Veli-Matti Käkkäinen. "6장. 신성화". 333-367.  
 Bell Rob and Don Golden (2008). *Jesus Wants to Save Christians*. Grand Rapids, MI: Zondervan. 양혜원 역 (2011). 『네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서울: 포이에마.  
 Bewes, R. (1995). *Does God Reign?* 민영기 역 (1999).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십니까?』. 서울: IVP.  
 Borg, M. J. and N. T. Wright (1999). *The Meaning to Jesus: Two Visions*. 김준우 역 (2001). 『예수의 의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Wright, Nicholas Thomas "14장: 예수의 미래." 301-311.  
 Baum, Gregory (Ed.). (1999). *The Twentieth Century: A Theological Overview*. 연구홍 역 (2009). 『20세기의 사건들과 현대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Beiby, James K. and Paul Rhodes Eddy (2011). *Justification: Five Views*. Downer Groves, IL: IVP. 문현인 역 (2015). 『칭의 논쟁: 칭의에 대한 다섯 가지 신학적 관점』. 서울: 새물결플러스. James K. Beiby, Paul Rhodes Eddy, and Steve Enderlein, "1장. 칭의 개념의 역사". 21-77. Veli-Matti Käkkäinen, "6장. 신성화". 333-367.  
 Bell, Rob and Don Golden (2008). *Jesus Wants to Save Christians*. Grand Rapids, MI: Zondervan. 양혜원 역 (2011). 『네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 서울: 포이에마.  
 Bewes, R. (1995). *Does God Reign?* 민영기 역 (1999).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십니까?』. 서울: IVP.  
 Borg, M. J. and N. T. Wright (1999). *The Meaning to Jesus: Two Visions*. Wright, N. T. "14장: 예수의 미래." 김준우 역 (2001). 『예수의 의미』.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301-311.  
 Bouma-Prediger, S. (2010). *For the Beauty of the Earth*. 김기철 역 (2011).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서울: 복있는사람.  
 Tchividjian, Tullian (2012). *Unfashionable*. Multnomah Books. 정성묵 역 (2014). 『더

- 크리스천』. 서울: 두란노.
- Clairborne, Shane (2006). *The Irresistible Revolution*. Grand Rapids, MI: Zondervan. 배응준 역 (2013).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서울: 아바서원.
- Clapp, R. (2004). *Tortured Wonders*. 홍병룡 역 (2006). 『사람을 위한 영성』. 서울: IVP.
- Doriani, Daniel M. (2001).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정옥배 (2009).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Ehrman, Bart D. (2008). *God's Problem: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 Why We Suffer*. HarperCollins. 이화인 역 (2016). 『고통, 인간의 문제인가 신의 문제인가』. 서울: 갈라파고스.
- Griffiths, Michael (1975). *Cinderella with Amnesia: A practical discussion of the relevance of the church*. Leicester. IVP. 권영석 역 (1992).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서울: IVP. 이 책은 미국에서 *God's Forgetful Pilgrims: Recalling the Church to Its Reason for Being*. 제목으로 IVP에서 출판됨.
- Hauerwas, Stanley and William H. Willimon (1986). *Resident Aliens: Life in the Christian Colony*. Nashville, TN: Abingdon Press. 김기철 역 (2008).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서울: 복있는사람.
- Holmes, Arthur F. (1977). *All Truth Is God's Truth*. Grand Rapids, MI: Eerdmans. 서원모 역 (1991).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 Hurtado, Larry W. (2016). *Destroyer of the Gods*. Waco, TX: Baylor University Press. 이주만 역 (2017).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렀던 사람들: 기독교 본연의 모습을 찾아 떠나는 여행』. 고양: 이와우.
- Jennings, Theodore (2013). *Outlaw Justice: The Messianic Politics of Paul*. Stanford University Press. 박성훈 역 (2018). 『무법적 정의: 바울의 메시아 정치』. 서울: 길.
- Kreeft, P. (2007). *The Philosophy of Jesus*. 류의근 역 (2010). 『예수 철학』. 서울: 서광사.
- Kullberg, K. M. (Ed.) (2007). *Finding God at Harvard*. Wolterstorff, N. (2011). “내 삶을 형상한 은총.” 배덕만 역 (2011). 『지성의 회심』. 서울: 새물결플러스. 221-236.
- McKnight, Scot (2014). *Kingdom Conspiracy: Returning to the Radical Mission of the Local Church*.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김광남 역 (2016).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서울: 새물결플러스.
- McKnight, Scot (2011). *The King Jesus Gospel*. Grand Rapids, MI: Zondervan. 박세혁 역 (2014). 『예수 왕의 복음: 당신의 삶에 예수 통치가 임하게 하라!』. 서울: 새물결플러스.
- McLaren, Brian D. (2007). *Everything Must Change*. Nashville, TN: Thomas Nelson Inc. 김선일 역 (2010). 『예수에게서 답을 찾다』. 서울: 포이에마.
- Miller, William R. and Harold D. Delaney eds. (2005). *Judeo-Christian Perspectives on Psychology: Human Nature, Motivation, and Change*. 김용태 역 (2015). 『심리학에서의 유대-기독교관점』. 서울: 학지사. William R. Miller, “1장. 인간본성이란 무엇인가: 유대-기독교관점으로부터 반영”. 23-47.
- Morreal, John & Tamara Sonn (2014). *50 Great Myths About Religions*. 이종훈 역 (2015). 『신자들도 모르는 종교에 관한 50가지 오해』. 서울: 휴.
- Mouw, Richard (2004). *Calvinism in the Las Vegas Airport*. 김동규 역 (2008). 『칼빈주의, 라스베가스 공항을 가다』. 서울: SFC.

- Mouw, Richard (1992). *Uncommon Decency. Down Grovers.* IL: IVP. 홍병룡 역 (2004). 『무례한 기독교』. 서울: IVP.
- Newbigin, Lesslie (1986). *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 Grand Rapids. MI: Eerdmans. 홍병룡 역 (2005).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요』. 서울: IVP.
- Noll, Mark A. and R. F. Thiemann (Ed.) (2000). *Where? Shall My Wond'ring Soul Begin.* 샌더스, C. (2012). "훈련된 영성." 최규택 역 (2012). 『하버드대학에서 만난 복음주의』. 서울: 미소북스. 121-137. and Mouw, Richard (2012). "복음주의 윤리". 139-167.
- Pelikan, Jaroslav (2005). *Whose Bible Is It?: A History of the Scriptures Through the Ages.* Viking. 김경민·양세규 공역 (2017). 『성서, 역사와 만나다: 민족의 경전에서 인류의 고전으로』. 서울: 비아.
- Pohl, C. (1999). *Making Room.* 정옥배 역 (2002). 『손대접』. 서울: 복있는사람.
- Rusaw, Rick and Eric Swanson (2004). *The Externally Focused Church.* Group Publishing Inc. 김용환 역 (2008).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Sider, Ronald J. (1996). *Genuine Christianity.* 김선일 역 (1998).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서울: IVP.
- Sider, Ronald J. (1994). *Cup of Water, Bread of Life.* 이영길 역 (1999). 『물 한 모금, 생명의 떡』. 서울: IVP.
- Snyder, H. A. (1983). *Liberating the Church.* 권영석 역 (2005). 『참으로 해방된 교회』. IVP.
- Snyder, H. A. (1985). *A Kingdom Manifesto.* 안명준 역 (1994). 『천국의 선언』. 성광문화사.
- Spong, John Shelby (1991). *Rescuing the Bible from Fundamentalism: A Bishop Rethinks the Meaning of Scripture.*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한성수 역 (2002). 『성경을 해결시켜라: 교회 감독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되살려 낸다』.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 Stearns, Richard (2009). *The Hole in Our Gospel.* 홍종락 역 (2010). 『구멍 난 복음』. 서울: 홍성사.
- Stott, John R. W. (1999).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2005).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Stott, John R. W. (1980). *The Whole Christian.* 편집부 역 (1997).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서울: IVP.
- Stott, John R. W. (1975). *Balanced Christianity.* 정지영 역 (2011). 『존 스토티의 균형 잡힌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 Vanderstelt, Jeff (2017). *Gospel Fluency: Speaking the Truths of Jesus into the Everyday stuff of Life.* Wheaton. Ill: Crossway. 장성은 역 (2018). 『복음의 언어: 일상에서 복음이 유창해질 때까지』. 서울: 토기장이.
- Volf, Miroslav (2011). *A Public Faith.* Grand Rapids. MI: Brazos Press. 김명윤 역 (2014). 『과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 Walton, John H. (2015). *The Lost World of Adam and Eve: Genesis 2-3 and the Human Origin Debat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김광남 역 (2018).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 역사적 아담의 기원과 정체성에 관한 논쟁』. 서울: 새물결플러스.. 이 책의 "명제19: 아담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죄가 인간에게 미친 영향보다는 죄가 우주에게 미친 영향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

- 무것도 말하지 않는다(툼 라이트가 쓴 아담에 관한 바울의 언급에 대한 보충 설명 포함)“ 318-337에는 Nicholas Thomas Wright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 Wallis, J. (2005). *The Call to Conversion*. 정모세 역 (2008). 『회심』. 서울: IVP.
- Wright, Christopher J. H. (2014). *How to Preach and Teach the Old Testament for All Its Worth*. Grand Rapids, MI: Zondervan. 전의우 역 (2016). 『구약을 어떻게 설교 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 Wright, Christopher J. H. 정옥배 역 (1991). 『현대인을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 Wright, Nicholas Thomas (2011). *Simply Jesus*. HarperCollins. 유종석 역 (2013). 『툼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 서울: 두란노.
- Wright, Nicholas Thomas (2010). *After You Believe: Why Christian Character Matters*. HarperOne. 홍병룡 역 (2010). 『그리스도인의 미덕』. 서울: 포이에마.
- Wright, Nicholas Thomas. (2007). *Surprised by Hope*. 양혜원 역 (2009).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서울: IVP.
- Yoder, John Howard (1994). *The Politics of Jesus*. 신원하·권연경 역 (2007). 『예수의 정치학』. 서울: IVP.

[재인용문헌]

- 김동건 (2011). 『현대인을 위한 신학강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org, M. and John D. Crossan. 이준우 역 (2011). 『첫번째 바울 서신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Bratt, J. D. (Ed.) (1988). *Abraham Kuyper*. Grand Rapids, MI: Eerdmans.
- Migliore, Daniel 신옥수·백충현 공역 (2012). 『기독교 조직신학 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 Migliore, Daniel (1991). *Faith Seeking Understanding*. Grand Rapids, MI: Eerdmans.
- Newbigin, Nesslie (1999). *The Open Secret*. Grand Rapids, MI: Eerdmans.
- Willard, Dallas (1998). *The Divine Conspiracy: Rediscovering Our Hidden Life in God*.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